

[illegible]

【高麗篇 3】

李智冠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인간의 본래불성,
자연의 근본법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책은 본 법인의 학술진흥사업으로 출간됩니다.

한국불교금석문교감역주 권 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역주한 이

李 智 冠

발 행 인

李 智 冠

발 행 처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기획연구실 765-9602

학술출판부 765-9603

사전편찬부 745-1663

F A X 765-5673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인쇄일 1996년 7월 1일

발행일 1996년 7월 15일

圖書出版 伽山文庫

등록번호 제 6-116호(1990. 12. 24)

ISBN 89 - 85903 - 06 - 3 - 94900

25,000 원

譯註者 紹介

譯註者 李智冠은 1932년 慶北 迎日郡 淸河面 柳溪里에서 出生, 1947년 慶南 陝川 海印寺에서 慈雲스님을 恩師로 하여 得度하였다. 1955년 海印寺講院 耘虛스님 講下에서 大教科를 卒業하고, 1960년부터 1970년까지 海印講院 講主로 있으면서 後學을 養成하였다. 이어 海印寺 住持를 歷任하였으며, 曹溪宗 宗會副議長, 東國學園 理事, 그리고 東國大學校 正覺院長, 佛教大學長, 教育大學院長 등을 거쳐 제 11 대 東國大學校 總長, 그 이후 法寶宗刹 海印寺의 住持를 再任하였다.

현재 東國大學校 禪學科 教授로 재직중이며,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理事長으로서 韓國佛教의 學術文化 振興에 힘쓰며 著述活動에 임하고 있다.

著 書

四集私記·楞嚴經略解·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要經序說·南北傳六部律藏比較研究·比丘尼戒律研究·信行龜鑑·信行365日·信行日鑑·曹溪宗史·伽倻山海印寺誌·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1, 高麗篇 2) 外 多數

한국불교금석문교감역주 권4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李智冠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題字 / 松泉 鄭夏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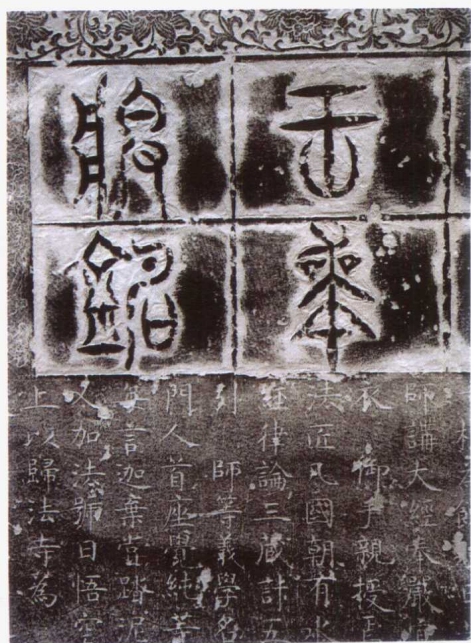
書報 /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 碑와 碑閣(편액: 著者 書)

(보물 제128호,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소재)

拓本 1 /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碑文(李智冠 所藏)

拓本 2 / 山淸 斷俗寺 大鑑國師碑文(朴永弼 所藏)





猶心相莫知者所讀教外別傳之
妙理直接人心因重此月時成佛
也適正喜提達者自去以大
寶鈴魏付神為世後法眼藏方
碑于世祖相授燈子不煩東
于海及我耶惟是此大光明
藏寮廊無邊含攝法法大寶

國書美於歷山一
十八年重刊史
修國史並大子大昭
奏宣撫音貢寺任其大
重失昭臣機臣奏
自是以平上宋歷觀音齋梁世

天下後世不可及
然特數曜我大鑑國師即萬人
也宗派考之師以臨濟九代孫
也師碑垣然點點縣或東院陽縣
不字書以軍切為後嗣則為
氏女甘昭與吳賢志在奉年
育九歲解屬文傳詩有舊人語
故不持書時以爲千里駒十二

少文字之所能證不可以知
詩典於此我其有探竅三條寶
我橫截衆流直起彼岸十方
黃古之相一吸盡西江之溢開
諸門作師五教大事之因緣興

寺後寺主護持年十有五也歸
慕禪悅乃歸廣明寺依慧一姑國師
昨勤承事遂傳心要於是遊歷注
旁編奏禪肆華林以母老不忍遠
去左右求月外以卜青養養老
意遊禪王陵神散馳聲數十
大遭乳饒四年甲申赴大選優
是年命住中原義林寺睿王

經學通大義十五明經書
外於世儒儒術推重 肅王
瑞祥雅聞其賢招致宮中俾侍
學兄令一日離去世子弟
也歸後有出塵之志視身世
浮雲并名利名聲從嘗與師安
臥云二高士相遊伯聞師安樂
中曾出宮徑至京北山安

題額若新祐所惠自法會後
不為僧舍而為人相傳以和青
中統二年是寺諸師皆宮內道
親以金剛不翻珠授之師即口上
詩一首奏謝 帝欲其妙十青
禪師讀賜金欄袈裟手衣制加
十四年乙卯等將陞色住
十六年丁巳等將陞色住

以元初愛重大師三年丁亥遷
明順寺四年戊子初重大師十
年中特授三重大師仍賜法服
二年丁酉住禪藏寺十六年庚子
制本禪師仁王元年壬寅特賜
其兩寺住任夫和寺六年壬寅
住提調寺七年戊申春師奏請
所住寺開張法會此山素多

한국불교금석문교감역주 권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李智冠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自序

自古로 歷史와 그 文化를 照望함에 있어서 一字의 문헌과 一分의 모양이라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重重無盡한 有情無情의 미묘한 현상계와 一微塵中 含十方이라는 경의 말씀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진지한 탐구와 정진에 의해 향상된 안목은 문득 과거를 뚜렷이 열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비전을 靈明하게 예견하기도 한다.

古今의 철인과 석학들은 진리탐구의 열정을 이러한 안목이 자연과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한다는 신념에서 일관했으며, 대중은 그러한 德들이 共生の 原理를 실천해 가는 指南이 되기에 敬仰하여 따르는 것이다.

필자는 학덕을 연마함이 이렇게 소중하고 敬畏할 자리임을 성찰함에 있어서, 그 의미와 자미를 일깨워 주는 공부가 바로 金石文의 深廣한 세계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공을 자재로이 넘나들었던 역대 先僧들의 孤高하면서도 燦然한 수행과 교화의 자취, 그 자취가 남겨진 그윽한 돌과 쇠붙이들, 즉 自然과 人間이 交感하여 남겨 놓은 비석의 모퉁이에는 한 甲子를 넘기고는 기꺼워하는, 숨쉬는 인간의 일생보다 더 깊고 그윽한 歷史의 香氣가 살아 있다.

필자가 역대 고승들의 비문을 譯解하고자 뜻을 낸 것도 난해한 문장과 그 풀이에 막혀서, 위의 敬畏할 德들이 간혀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수려한 문장과 撮略한 내용의 금석문은 역사연구의 일차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상, 역사, 교리, 철학, 민속, 문학, 선시, 서예, 미술 등 그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진 종합의 문학임에도, 現今까지는 미술과 실측분야만은 그런대로 연구되어 왔으나 내용과 사상연구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照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불교금석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분적 字句 인용과 비석, 귀부, 이수, 字徑 등 외형적 측량에는 그나마 세밀하게

연구하여 왔으나, 그 내용연구에 있어서는 개요설명에 그친 실정이고, 가쓰라기 마쓰기(葛城末治)의 『朝鮮金石考』를 제외하고는 거의 全無한 상태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오던차, 약 5년 전 필자는 원력사업을 위해 개원한 伽山佛教文化研究院에 '韓國佛教金石文講座'이라는 강설마당을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강의한 高僧들 만의 비문을 다시 다듬어 원문을 校勘하고 譯註하여, 韓國佛教金石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이라 이름하여 연속 출간하게 되었다.

三世의 永遠한 眞理를 성취하기 위해 정진하는 僧伽의 後學들과 불자들은 물론, 한국불교의 歷史와 그 불교의 역사를 중심에 내포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연찬하는 후학들에게도, 內典을 修學하는 衲子의 本分이 아닌가 하여 '繼往開來'하는 마음으로 譯註에 임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려조, 조선조 순으로 강설내용을 정리하여 계속 간행하고자 한다.

이를 간행함에 있어서 편집에서 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준 가산의 玄元스님, 崔源植 및 朴南守 박사, 張日圭 研究員, 柳柱姬氏 등에게도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끝으로 금석문은 문장과 어휘, 제도 등 세대를 격함이 오래되어, 그 내용연구를 위하여 『海東金石苑』, 『朝鮮金石總覽』, 『韓國金石全文』 등 三本과 그외의 자료를 대교하여 脫衍倒誤 등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反傷良玉의 瑕疵를 나타내지 않음이 없을 것으로 思料되니, 後賢들의 校匡을 바라는 바이다.

佛紀 2540(1996)년 7월 1일

伽山蘭若에서 伽倻山人 李智冠 誌

일러두기

1. 配列順序는 立碑한 年代順으로 하였다.
2. 原文校勘은 『朝鮮金石總覽』을 底本으로 하고, 讀者의 편의를 도모하여 懸吐 대신 구절을 띄었다.
3. 碑文은 原文을 對校하였는데, 『朝鮮金石總覽』을 [底本]·[總]으로, 『韓國金石全文』을 [全]으로, 『海東金石苑』을 [苑]으로 표기하였다.
4. 『朝鮮金石總覽』과 『韓國金石全文』, 『海東金石苑』 등 3本 以外의 落穂部分을 添補하였을 경우에는 某本에 의한다고 표시하였다.
5. 音寫語인 경우 梵語原音が 있는 것은 Sanskrit語의 머리자 s. 로 표시하였다.

目 次

畫 報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 碑文 拓本
自 序	伽山 李智冠
1. 金溝 金山寺 慧德王師 眞應塔碑文	
原文校勘	20
역 주	36
2.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 碑文	
原文校勘	72
역 주	81
3. 開城 興王寺 大覺國師 墓誌銘	
原文校勘	106
역 주	109
4. 開城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	
原文校勘	116
역 주	135
5. 仁同 僊鳳寺 大覺國師 碑文	
原文校勘	180
역 주	189

6. 歸法寺 寂炤首座 玄應 墓誌銘	
原文校勘	216
역 주	217
7. 洪圓寺 廣濟僧統 聰諱 墓誌銘	
原文校勘	220
역 주	222
8. 開城 興王寺 圓明國師 墓誌銘	
原文校勘	226
역 주	229
9. 玄化寺 主持 闡祥 墓誌銘	
原文校勘	236
역 주	238
10. 國淸寺 妙應大禪師 教雄 墓誌銘	
原文校勘	242
역 주	245
11. 松川寺 妙能 三重大師 世賢 墓誌銘	
原文校勘	254
역 주	256